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저는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담배 연기가 정말로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담배가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우는 사람, 다이어트를 위해 피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습관성으로 피우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담배는 기호식품이기때문에 별로 나에게는 관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간접흡연이 더 위험하다는 TV프로그램을 본적이 있습니다. 또, 담배에는 100가지 이상의 신체에 위험한 식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담배 갑에 건강을 해칠수도 있다는 문구가 있지만,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분명히 ‘금연’이라는 팻말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치 않고,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는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규범은 꼭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공공규범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생활하면, 이 사회는 혼란스러워 질것입니다.

사소한 문제인 담배를 피우는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는 기호 식품이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피우지 않는 편이 좋고,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피우지 않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공공의식이 있다면, 한층더 함께 생활하기가 편리할거라고 생각합니다.